

붉은빛 물든 항일정신 세대 이어 전해진다

—항일민족영웅 리홍광기념관을 찾아서



홍광중학교 교수청사 동쪽에 자리잡은 리홍광기념관

반산간지대에 위치한 반석에는 항일민족영웅 리홍광의 이름을 딴 학교인 홍광중학교(전신 반석시조선족중학교)가 있다. 학교에는 300여평방미터 규모의 리홍광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기념관에는 한장한장의 역사 사진과 설명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관람객들을 포화기 비발치는 위기 속에서 구국의 영웅적 투쟁을 펼쳐던 시대로 이끈다.

리홍광은 1910년생으로 반석항일유격대 창설자중 한명이자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의 뛰어난 지휘관이었으며 항일명장 양정우의 친근한 전우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다. 1930년 8월, 중국공산당반석현위원회가 설립되자 리홍광은 진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공산주의청년단 단원으로 받아들여졌고 같은 해 9월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1931년 8월, 만주성당위는 대중 항일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반석중심현당위를 설립하고 쌍양-이흥 특별지부를 구성했으며 리홍광이 특별지부 조직위원으로 임명되었다.

9·18 사변 이후 리홍광은 매국노를 처단하는 '타구대(打狗队)' 대장으로 활약했다. 1931년 12월, 그는 반석중심현당위 위원으로 임명되어 반

석적색유격대 대장을 맡았고 이듬해 4월에는 반석 '4·3' 반일폭동을 주도했다. 1932년 6월, 만주공농반일의 용군 제1군 제4종대가 반석지역에서 창설되었고 이후 이 부대는 중국공농홍군 제32군 남만유격대로 개칭되었는데 양정우가 정치위원을 맡고 리홍광이 교도대 정치위원을 맡았다. 1933년 1월부터 5월초까지 일본 침략자들은 반석항일유격근거지를 네차례 대규모 토벌했으나 양정우와 리

홍광 등의 지휘 아래 유격대는 유연한 전술로 이 공세를 모두 격파했다. 1933년 9월, 남만유격대는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독립사로 개편되었고 양정우가 사장 겸 정치위원, 리홍광이 참모장으로 임명되었다. 1934년 11월, 만주성당위의 지시에 따라 남만 제1차 당대회에서는 독립사를 기반으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을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양정우가 군장 겸 정치위원, 리홍광이 제1사 사장 겸



리홍광기념관을 참관하고 있는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 회원들

정치위원을 맡았다.

극도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리홍광과 양정우 등 공산당원들이 이끈 동북인민 항일무장 세력은 백산흑수사에서 끈질긴 투쟁을 이어가며 일본 침략자의 기세를 크게 꺾어놓았다.

1934년 8월, 리홍광은 통화에서 산성진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일본군 차량부대를 대복습격하여 일본침략군 탱크 대좌(铁板大佐) 등 28명을 사살하고 경기관총 1정, 소총 5자루, 권총 2자루 및 항일부대 조사 비밀문서 1부를 회수했다.

1935년 5월, 리홍광은 일본군과의 전투중 불행히도 총탄에 맞아 장렬히 희생되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5세였다.

“우리는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 탄생... 하늘이 휘날리는 우리의 승리 굳기 비추는 붉은빛 돌격하라, 우리의 제1로군!”

리홍광이 희생된 후, 양정우 장군이 작사한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 군가>에는 '홍광(붉은빛)'이라는 단어가 담겨있어 이 항일민족영웅을 추억하게 하며 무한한 투지력을 불러일으킨다.

홍광중학교 1학년생이자 리홍광기념관 제8기 해설원인 진수비학생은 기자에게 해설원 경험은 그에게 혁명 선배들의 고난과 투쟁 이야기를 더 많이 알게 해주었으며 이는 학습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저는 이 홍색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공부에 잘 활용해 어려움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홍광중학교 교장이자 리홍광기념관 관장인 김일동은 기념관은 리홍광 장군과 전우들의 영웅적 업적을 아로새기고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학생들이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리홍광기념관의 관광객 접대 인수는 연간 1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반석시애국주의교양기지, 길림시애국주의교양기지, 길림시미성년자상도덕교양시범기지로 지정되었다.

/ 경제일보 / 사진 차영국기자

'항전 승리 80주년 기념 문예야회'서 길림시가무단 무용 선보여



공연의 한 장면

9월 3일, 인민대회당에서 펼쳐진 '항전 승리 80주년 기념 문예야회'에서 길림시가무단 배우들이 <연안! 연안!>, <불후의 선물>, <막을 수 없는 세찬 기세> 등 종목에 출연해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다.

역사의 진실된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출연진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연안정신을 깊이 이해하는 등 방대한 준비 작업을 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평화는 반드시 승리하며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정신은 길림시가무단의

기질로 자리잡았다. <연안! 연안!>에서는 황무지를 개간하고 철기를 단조하는 춤사위로 '인민의 승리'를 상징하는 군민의 일치한 힘을 표현했으며 <불후의 선물>에서는 전쟁 속 노래와 웨임을 신체 언어로 재현해 '정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막을 수 없는 세찬 기세>의 장엄한 춤은 '평화의 승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단원들은 하나같이 일치한 동작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 강성일보

길림 시민들

"집앞에서 전국 명품 구매해 너무 좋아요"

8월 29일, '2025 중국 길림 미디어 쇼핑 시즌 및 전국 도시연합명품 토산품 전시회'가 길림시 인민광장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명품 토산품 전시회는 길림 융합미디어센터와 길림시융합미디어그룹유한회사가 주최하고 안휘성의 모 전시기획유한회사가 주관했다. 전시회에는 전국 40여개 도시의 수전총 식품, 경공업품이 전시되어 길림 시민들에게 '집앞에서 전국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 주최측 관계자는 "소비는 민

생과 직결되며 백성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기도 하다. 이번 전국 도시연합 명품 토산품 전시회를 통해 생산과 판매의 연계 채널을 구축하고 우리 시의 명품 특산품이 전국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2일까지 계속된다. / 무송융합매체

길림시 '건강쾌락'무용동호회 가을맞이 야외 행사



8월 25일, 길림시 조선족 '건강쾌락'무용동호회 회원 130명은 로엔경 회장의 인솔하에 길림시 근교 강밀봉진 산수농장에서 가을맞이 야외 행사를 진행했다.

동호회는 삼복철이 지나고 립추의 선술바람이 불어오는 이때가 야외활동에 딱 좋은 때라고 이날을 선택했다.

이번 행사를 책임진 전문부회장은 행사 전담에 남녀 10명을 뽑아 행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차에 싣고 산수농장으로 가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행사 당일, 산수농장에 도착한 회원들은 우선 산수농장의 저수지와 풍년 든 과수원을 참관하고 몽골포에서 문예오락활동을 펼쳤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삼복철에 보신탕을 먹는 습관이 있다. 중국 명조시대 저명한 의약학자 리시진은 그의 저작 <본초강목>에서 아주 명백하게 개고기는 성질이 따뜻

해 위장에도 좋고 원기 회복에도 아주 좋다고 썼다. 보신탕은 우리 로엔경 회장의 인솔하에 길림시 근교 강밀봉진 산수농장에서 가을맞이 야외 행사를 진행했다.

130여명이 푸짐히 먹을 수 있게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고 음식 솜씨가 좋은 녀성 회원들을 미리 파견해 대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4개의 가마솥을 걸어 보신탕을 끓여놓았다. 이외에 보신탕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맛있는 추어탕도 끓여놓았다.

보신탕은 너무 맛있게 잘 끓여 모두가 엄지손을 내밀었다. 푸짐하게 차린 식탁에 모두들 만족하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다.

후에는 문예오락활동이 펼쳐졌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북소리, 팽파리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회원들은 장단에 맞춰 춤사위를 벌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백영실, 문정호특약기자

길림시 제 3 회 가전가구박람회 성황리에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3회 가전가구박람회가 길림시국제박람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개의 우수 가정용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가전가구박람회는 '편리함,

혜택, 품질 향상'을 목표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길림 시민들에게 원스톱(一站式)고 품질 가전과 가구 쇼핑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9,000평방미터 규모의 전시장에서 길림지역 및 전국

의 업계 우수 자원을 종합적으로 선보였다. 전시 품목은 건축자재, 인테리어, 욕실용품, 가전, 주방기기, 소프트 가구, 청문, 맞춤형 가구, 목재 및 종합 생활용품 등 전 산업을 아우르며 시민들의 구매 수요를 충족시켰다. 참가 업체들은 또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전시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행사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는 가전제품 업그레이드와 신축 주택 인테리어가 주요 소비 트렌드로 나타났다. / 무송융합매체

동북아박람회에서 길림시 특색산업 모습 드러내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장춘에서 열린 동북아박람회에서 길림시 도시 이미지 전시부스외에도 길림시 특색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각종 전시관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이목을 끌었다.

신소비신서비스관의 길림시백령다운(羽绒) 제품유한회사 부스는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다운 이불, 다운 베개 등 제품들은 부드럽고 폭신한 질감, 탁월한 보온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985년에 설립된 이 기업은 연간 800톤의 다운을 가공하고 다운 의류 및 이불 등 10만점의 제품을 생산하며 일본과 유럽, 미국 등 세계 각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동북 지역 최대 다운 및 제품 수출기이다.

교하시 부스 또한 많은 시선을 사로잡았다. '석재', '의약건강', '신에너지', '문화관광', '농특산물 정밀가공' 등 5대 산



업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성과를 전시, 건강과 목이버섯 등의 농특산물부터 령지버섯 분말 등 특색 있는 의약건강 제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었다. 교하시는 동북아박람회라는 중요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 특색제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더 많은 우수한 자원을 유치해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무송융합매체